

Peach가 취항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Peach의 5년은, 일본 LCC의 역사 ~

- 2017년 3월 1일로 취항 5주년
- 취항 이래 누적 탑승객수는 1700만명 이상
- 잠재 수요를 끌어내고, 일본의 인바운드 수요와 LCC 업계를 이끌다.
-

Peach Aviation 주식회사 (이하 : Peach, 대표이사 CEO : 이노우에 신이치) 는, 3월 1일로 취항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Peach는 일본의 LCC로, 「일본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를 목표로 하며, 하늘을 나는 기차라는 컨셉으로, 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 2012년 3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수도권보다 아시아에서 1시간 가까운 간사이 공항의 이점을 살린, 독자적인 경영 모델을 기반으로, 일본 항공 사상, 최고 속도의 페이스로 국내선, 국제선을 운항을 전개해 왔습니다. 취항 8개월만인 2012년 11월에는, 누적 여객수 100만명을 돌파하고, 2014년 4월에는 500만명, 2015년 8월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여, 지금까지 누적 17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Peach가 취항을 시작한 2012년은, 일본의 LCC 원년이라고 불리며, 2012년의 당시에는 5%에도 못 미쳤던 일본의 LCC의 시장이, 현재는 10%를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참고:국토 교통성 항공국)

더욱이, 2012년 이후 간사이 공항에는, 아시아로부터의 인바운드 여객수가 수도권의 주요 공항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Peach는 일본의 인바운드 수요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간사이에서 탄생한 일본의 새로운 항공 회사가, 아시아에서도 인식되기 시작하며, 2015년 11월에는, CAPA(항공 업계에 있어서의 독립계 씽크탱크)로 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LCC 오브더 이어」를 북동 아시아의 LCC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each의 고객층도 특징적이며, 푸시아핑크(자홍색 핑크)를 기조로 한 기체의 디자인 등, 여성을 메인 타겟으로 하며, 거의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대부분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 근래에는 손님의 30% 가까이가 20대~30대의 여성이 그 주축을 이루며, 국제선의 외국인 탑승 비율이 70% 넘는 등, 항공 이용의 잠재수요를 개척하는 것을 통해, 하늘을 나는 기차 Peach가, 말대로 기차와 같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Peach를 이용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각지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당일치기로의 해외 여행 등, 고객 스스로가 완전히 새로운 여행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정도, Peach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대표이사 CEO인 이노우에 신이치는, 「Peach는 5년간, 일본의 항공 업계에서 최고 속도로 사업을 전개해 왔고, 불가능이라고 말해진 수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며, 「가장 성공하고 있는 일본의 LCC」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전적으로, 지금까지 이용해 주신 고객, 그리고 지지해 주신 팬 여러분, 지자체나 관계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취항 당시, 일본에서 LCC가 뿌리 내릴 리 수가 없다는 편견과, 여객수 감소에 고민하는 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 회사가 성공할 리가 없다는 등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지금은 일본에서도 LCC가 넓게 인식되어지고, 간사이 공항은 사람들로 들끓으며 개항 이래 최고의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Peach는 지금까지와 같이, 다른 항공노선에 없는 독자성을 계속 추구해 오면서 아시아의 고객들에게 웃는 얼굴을 전하는 항공 회사를 목표로 나아갈 것이므로, 계속해서 많은 이용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에도 Peach는, 일본의 항공 업계의 혁신자로서 일본과 아시아의 하늘을 Peach의 색으로 물들여 가겠습니다. 취항 5년째부터의 Peach도 아무쪼록 기대 주시기 바랍니다.

Peach (www.flypeach.com)

Peach는, 2012년 3월 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2014년 7월에는 나하 공항을 간사이 공항에 뒤잇는 거점 공항으로 하고, 2015년 8월에는 하네다 공항에 취항했습니다. 현재, 18기의 항공기로, 국내선 14 노선, 국제선 13 노선을 취항하며, 1일 90편 이상을 운항하는 것과 동시에, 13,0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센다이 공항, 2018년도에는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할 예정입니다.